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구조적 특징: 태동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동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호성
	"헤겔의 변증법"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변증법에 따라	-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
철학적 논증을 수행함	-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 [중중구조]-연못에 비친 달 ↳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함
	-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룸
미학도 철저히	'헤겔의 변증법과 미학'
변증법적으로 구성됨	- 미학의 대상: 예술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함	- 절대정신: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
	-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됨
	[형식] 직관·표상·사유: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
예술 직관하는 절대정신,	-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종교 표상하는 절대정신,	-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철학 사유하는 절대정신	-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됨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됨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함"
	[헤겔이 진리를 정의함]: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
	▶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내면만 과거로 한정됨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㉔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㉕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㉖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㉗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㉗ 는 말이 됩니다.

